

꽃 구경에 '신바람' 우리가락에 '흥바람'



안동 영월교

봄, 공연예술에 빠지다

봄은 봄 자체로 예술이다.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트린 봄꽃과 봄바람, 자연 그 자체가 예술이 되는 계절이다. 걸음 옮기기도 좋은 시간. 예술 같은 봄을 더 아름답게 만나보자. 사람이 만드는 예술을 더해 더욱 풍성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한 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 예술여행이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태평무전수관 무용단 상설 공연 주말 풍물단의 흥겨움에 취해보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의 주말 상설 공연은 우리 전통 장단과 기예를 만나고,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어 신명 나는 공연이다.

풍물, 어름(줄타기), 살판(땅재주), 버나(점시돌리기) 등 풍물놀이 여섯 마당과 각종 기예가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태평무전수관 무용단의 토요일 상설 공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를 비롯한 장구춤, 북춤, 향발무 등 우리 전통 춤을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춤사위와 우리가락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예술 뒤에 담긴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조선 후기 안성남사당놀이패가 머무른 청룡사와 소설 '임꺽정'의 배경이 된 칠장사는 안성이 품은 천년 고찰이다. 푸른 초원에서 귀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안성팜랜드, TV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서일농원과 안성허브마을도 걸음을 하게 좋다.

(문의:안성팜랜드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031-678-2518, 태평무전수관 031-676-0141)

◇800년을 이어온 신령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의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12세기 중엽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즐겼다.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의 애환과 웃음을 담아 탈춤을 췌

다. 양반과 선비로 대변되는 지배 계층을 비판하고, 과거승을 통해 종교의 타락을 비꼬는 내용을 담아 서민들은 한을 풀었다. 21세기의 관객은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탈춤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신명과 흥겨움이 가득한 공연에 꼬마 관객도 지루할 틈이 없다.

구석구석 전통을 만나는 길도 기다린다. 풍산 유씨 대종가 양진당과 서애 유성룡 선생의 충효당 같은 고택과 휴담이 아름다운 하회마을을 구석구석 거닐면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안동한지전시관과 하회세계탈박물관도 둘러보자. 안동민속박물관은 안팎이 두루 알차다. 월영교와 안동호만나볼 이길도 별별 아래 걸기 좋다.

(문의 안동시청 체육관광과 054-840-6392)

◇영동 난계국악단 토요일 상설 공연

국악의 선율은 천지에 피어나는 꽃 같다. 너울거리는 나비의 날갯짓도 닮은 것 같다. 봄 같은 국악을 만나는 공연. 영동군 난계국악단은 2014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난계국악기체합전수관에서 토요일 상설 국악 공연을 연다. 4월 5일은 아쟁 독주와 관현악, 양산의 절경을 담은 글에 음률을 붙인 '신양산가'와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신세대 감성에 맞게 쓴 '난감하네' 등을 무대에 올린다. 12일에는 가야금 독주, 관현악, '신양산가', '난감하네'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피리 독주와 관현악, 높고 맑은 소금 선율과 가야금의 앙상블, 산조합주, 사물놀이 등 매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난계국악박물관 부근에는 지름 5.5m, 길이 6m, 북동 지름 6.4m,

무게 7t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북 '천고'가 있다. 난계 박연의 일대기와 각종 악기, 국악 관련 자료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난계국악박물관도 있다. 영동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와인코리아도 들리기에 좋다. (문의 : 영동군 난계국악사업소 043-740-5944)

◇'아리랑요', 진도 국악 체험 여행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만날 수 있다. 진도를 대표하는 노래는 진도아리랑으로 진도를 여행하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랑이 갔네" 하는 노래가락을 들을 수 있다. 아리랑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국립남도국악원, 진도향토문화회관, 진도문화체험장 등이 대표적이다.

진도아리랑을 비롯해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남도잡가, 진도소포결군농악, 조도맞배노래 같은 전남무형문화재 등 우리 전통 국악을 공연한다. 국악 공연을 감상하면 왜 진도가 '민속의 보고'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된다.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그림을 그리며 말년을 보낸 운림산방에 가면 5대째 화가 가문을 계승하는 허씨 가문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전함 12척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명량해전의 전장 물물묵은 진도대교가 놓인 바다이며 세방낙조전망대에서는 절절이 솟은 작은 섬 사이로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는 국립남도국악원(0615404034)으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위), 2008년(22위), 2010년(37위)
2012년(47위), 2014년(57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빌딩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